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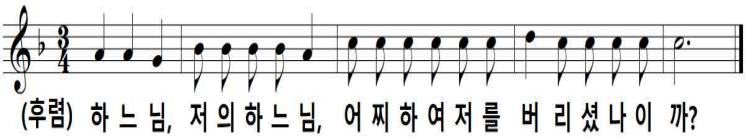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m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창세기 12,1-4ㄱ

화답송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2티모 1,8ㄴ-10

복음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 마태 17,1-9

성가

입당성가 호산나, 히브리아 아이들이~
예물준비 180 **주님의 작은 그릇**
영 성 체 504 **우리와 함께 주여**
파견성가 115 **수난기약 다다르니**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영숙 카타리나	김화자 소화데레사
한정수 비오 기일	한안나, 데레사
박대영	최미양 마르티나
민병택 베드로	유정옥 유스티나
김철영 미카엘	가족
곽두연 시몬 박희선	문안나
배이연 마리아 비앙카	김민정 로사리아

생미사	봉헌
김영덕 유스티나 생신축하	이경자 율리안나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정다경 마리아
이홍규요한 이로잔캐더린 이미숙안나 성가정위해	정크리스티나
사제님들과 모든 가톨릭신자들의 열성을 위해	조미카엘 조데레사
이영주 비오 생일	황지윤 아녜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4월 영명축일 맞으신분들 축하와 기도드려요~

4.4 베네딕토(작은형제회) 4.11 젬마 4.14 리드비나
4.16 벨라뎃다 4.21 안셀모 4.25 마르코 4.29 카타리나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분들과 함께드리는 공동 십자가의 길

4/7(금)	저녁 7시	사목회, 단체장, 전례부

▶성삼일과 부활성야 전례 안내

주님만찬 성목요일(4/6): 밤 8시 윗 성당
주님수난 성금요일(4/7): 밤 7시 십자가의 길부터 윗 성당
파스카 성야(4/8): 밤 10시, 윗 성당

▶고해성사

부활시기, 4월 한달동안 고해성사 없습니다.

▶2023, 주보광고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사후 다미안홀의 재무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비: $200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미사전 성경봉독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ㅛ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수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 무엇을 깔아드려야 할까요?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주간을 시작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복음에서 우리는 대비되는 두 그룹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칭하며 환호하는 제자들의 무리와, 예수님을 '선동자'라고 폄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 근교 벳파게와 베타니아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오리게네스는 베타니아가 '순종의 집'을 뜻하고, 벳파게는 '턱의 집', 곧 사제들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물의 턱은 사제들의 차지였기 때문입니다(신명 18,3 참조). 이런 해석으로 보니 베타니아와 벳파게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대사제'가 되신 예수님께 잘 어울리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 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겉옷을 빤다"(창세 49,11). 이 축복이 후손인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전까지 나귀를 타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어린 나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포도의 붉은 즙" 같은 피를 흘리실 수난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무리는 자신들이 봤던 모든 기적을 떠올리며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고통의 쓴잔을 드신 것처럼, 제자들은 겉옷을 깔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성무일도 독서기도에서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주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와서 당신 수난으로 바싹 다가서시는 그분께 달려가 그때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을 본받읍시다. 그러나 길에다 올리브 가지나 옷자락이나 팔마 가지를 깔지 말고, 우리 자신은 최대한의 겸손된 마음과 올바른 정신으로 그분 앞에 엎디어 다가오시는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느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입시다. 겸손 자체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상상하다 보니 갑자기 김소월님의 유명한 시 "진달래꽃"이 떠오릅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예수님 수난의 길에 우리의 기도와 겸손이 꽃으로 뿌려져, 그분의 발에 닿는 영광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4월 2일	백이백 아오스딩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한서희데레사 최예준사도요한 김승현마리아 양지수글라라 이유채아멜리아